

News

내일 새해 첫 한은 금통위 열린다... 기준금리 향방에 쏠리는 '눈'

머니S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4일 열릴 예정...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에 업계 촉각... 현재 1% 수준에서 1.25%로 0.25%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지배적
지난 12월 감안해 두달 연속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 이번 인상 배경으로 3%대에 달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때문... 저금리 장기화로 급증한 시중 유동성도 한 몫

충청은행·강원은행 부활? ...지방은행 활성화, 표심잡기로만 끝날지 주목

e대한경제

3월 20일 대선 앞두고 지방은행 설립 논의 수면 위로 떠올라...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 두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은행 설립안 제시한 상황
충청지역과 강원지역 지방은행 설립으로 역외유출 막고 지역주민들 대상 혜택 부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 다만 당국은 이러한 의견에 신중한 입장

하나금융, 환율 리스크 '축각'...옛 외환은행 '그림자'

데일리안

하나금융그룹, 비이자이익 실적 1조 8,07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 감소... 4개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감소... 환율 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
그간 금융그룹이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수 있었던 주요인은 수수료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 하나금융, 3분기 819억원 규모 비화폐성 환차손 떠안으며 비이자이익에 제동

'민영화' 우리금융, 권광석 은행장 교체 여부 설왕설래

국민일보

우리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장 교체 논란... 권광석 현 우리은행장의 임기 연장 여부가 최대 관심사... 임기 연장과 행장 교체의 의견 대립 중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와 관계상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 그 외 후보군으로는 이원덕 수석부사장과 박화재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이 거론

보험사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업계 최초 경쟁

e대한경제

보험사들, 업계 최초로 내세우며 사업 다각화에 나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영역에 진출해 먹거리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
KB손보, 고객 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워홈과 손잡아... 교보생명, 마이데이터사업 맞춤형 건강솔루션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과 MOU체결... 신사업 영역 경쟁력 확보 경쟁

출산율은 뚝뚝 떨어지는데...어린이보험은 쑥쑥 자란다

아시아경제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역대 최저치 기록 전방에도 어린이보험 시장 부상 중... 동 시장 1위 현대해상 뿐만 아니라 NH농협손보, 하나손보도 배타적사용권 확보 등 행보...
손보업계 뿐만 아니라 생보사들도 뛰어드는 중... 교보생명, 삼성생명, 새로운 상품 출시... 한화생명, 종신보험 가입연령을 만 15세까지 낮춰... 2분기에도 상품경쟁 지속 예정

KB증권, 인니 증권사 인수

서울경제

KB증권,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 뱌버리증권 지분 65%를 약 550억 원에 확보 예정... 뱌버리자산운용도 손자회사로 편입 예정
뱌버리증권, 인도네시아 증권 증권사로 2021년 3분기 기준 연간 ROE 12.1% 기록... 인도네시아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확대 전략 일환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 뛰어든 SK증권

한국경제

SK증권, 블록체인을 통한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들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펀블과 업무협약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조각투자 시장 부상해... 오는 4월 출시될 예정... 업무용 부동산 시작으로 서비스 개시 계획... 향후 다양한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 추가 가능성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